

## ■ ( 언론 동향 ) 2022.8.31. “농민신문” 보도

### ○ 이재명 대표 “80kg 쌀값 17만원까지 떨어져...신속한 시장격리 요청”

- 31일 최고위원회의서 모두발언
- 정기국회서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있다”며 “곧 수확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더 심한 폭락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가 법에 따라 시장격리에 신속하게 과감하게 나서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80kg 한가마에 22만원 하던 쌀값이 17만원까지 떨어져 소위 말하는 수매·시장격리를 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지연하거나 안하거나 방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쌀값 폭락을 예로 들며 정부의 농업 확대를 꼬집기도 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농업을 일종의 사양산업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며 “선진국들은 농업을 식량안보산업, 전략산업으로 판단하고 이미 엄청난 규모의 농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농가에 대한 지원 액수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10분의 1이 될까 말까 한 수준으로 매우 적은 데다가 특히 주곡인 쌀값 폭락은 농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농업의 미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원내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을 검토해서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시장격리에 나서도록 하는 입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7대 긴급 민생입법’의 하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앞서 쌀값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9월1일 오전 10시 원내대표실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과제모색 간담회’를 개최한다. 신정훈 의원을 팀장으로 한 TF에는 김수홍·김승남·김영주·김희재·서삼석·소병훈·어기구·위성곤·윤재갑·윤준병·이원택(간사)·주철현·한병도·홍기원 의원이 참여한다.

< 홍경진 기자 >